기아차 '포르테'

현대차 '아반떼'

국내 준중형차시장 경쟁

"아반떼를 넘어라"

국산차업계의 준중형차시장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다. 기아차와 GM대우 등이 신차 출시를 통해 국내 준중형차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해온 '아반떼'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특히 기아차는 다음달 프리미엄 준중형차인 '포르테'를 출시할 예정이어서 향후 준중형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기아차 '포르테'로 준중형시장 공략 시동**=기아차 '포르테'는 ▲동급 최대 사이즈 ▲동급 최고 출력과 연비 ▲최고급 편의사양을 표방하고 있다.

프리미엄 모델에 걸맞게 각종 사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차체 크기는 전장(앞뒤 길이)이 4천530㎜로 경쟁 준중형차들에 비해 15~25㎜ 길다. 전폭(좌우폭)도 1천775㎜로 최대 65㎜ 넓어졌다. 준중형차 가운데 최대 크기다.

타이어의 경우 경쟁차들보다 10~20㎜ 폭이 넓고 직경도 큰 17인치 휠을 사용한다. 타이어가 크고 넓으면 주행 성능과 승차감이 좋아진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엔진 성능도 크게 개선됐다. 1,600cc 감마엔진을 장착한 가솔린 모델은 최대 출력이 124마력으로 다른 차량보다 최대 3~17마력 높다. 연비도 14.1㎞/ℓ(자동변속기 기준)로 2~15% 우수하다.

내부 편의사양도 화려하다.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자동요금징수 하이패스 시스템, 블루투스 핸즈프리 등을 갖췄다.

최근 공개된 디자인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로체'에 이어 슈라이어 라인(그릴 아래 위가 튀어나온 기아차의 패밀리룩)이 채택됐으며, 풍부한 볼륨감과 날렵한 앞모습이 잘 어울린 스포티 세단이란 평가다.

◇**GM대우 신차 출시로 '아반떼' 공략 가세**=GM대우는 오는 10월께 신차 'J300'(프로젝트명)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세티'의 후속인 이 모델 역시 프리미엄 준중형차를 표방하고 있다. 이 차량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6단 변속기. 그동안 국내 준중형 모델에 6단 변속기가 장착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주행 성능을 중시하는 실속파 운전자들에게 크게 어필할 전망이다.

현재 국산차의 경우 중형차에도 6단 변속기가 적용된 것은 '토스카' 뿐이며 '쏘나타'와 '로체'는 4단 변속기가 장착돼 있다.

아직 정확한 제원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크기도 현재 '라세티'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델은 또 가칭 '월드 스몰 카'라고 불리며 향후 세계 각지에서 GM의 브랜드를 단 주력 준중형 모델이 될 예정이다.

◇**'아반떼' 아성 무너지나**=기아차 '포르테'와 GM대우의 'J300'은 '프리미엄 준중형'을 표방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아반떼' 이상의 성능과 크기를 자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회사의 야심작이 '아반떼'를 위협할 수 있을지가 하반기 자동차 시장의 최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아반떼'의 인기가 주춤한 것도 두 회사 준중형차의 약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반떼'는 올 상반기에 4만9천470대가 팔려 지난해(5만9천555대) 같은 기간에 비해 16.9%나 줄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보다 상위 차급으로 높아진 데다 경차인 '모닝'과 중형차인 '쏘나타 트랜스폼' 등의 폭발적 인기, 디자인 노후화 등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포르테'나 'J300'이 시장점유율 10%대 하락을 목전에 둔 국내 준중형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올해 준중형차의 시장점유율은 20.8%로, 1년 전보다 4.5% 감소하는 등 20%대가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내 준중형차의 고급화 전략이 차값을 올리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포르테'의 경우 '아반떼'보다 다소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J300'도 성능향상 등을 이유로 기존 '라세티'보다는 가격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최근 서울 멜론악스홀에서 열린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기아차 '포르테'의 실제 차량 공개 현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휴가철 안전운전 십계명

1.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

시속 40km의 충돌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자기 체중의 30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게 되며, 치사율은 5.9배에 달한다.

2.불쾌지수 운전은 금물

여름철에는 운전자들의 시각적 변화와 긴장감 등에 의해 사고가 증가한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계절인 만큼 난폭운전,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 등은 금물이다.

3.차도 '예방주사' 맞아야

휴가철 고장 요주의 차량은 ▲평소 온도게이지 절반 이상 ▲제동시 브레이크 소음 ▲3년 경과 타이어 등이다. 타이어나 엔진오일은 출발 전에 교환하는 게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4.슬리퍼가 사고를 부른다

운전중 오픈 슬리퍼나 야외용 간편 신발 등은 피해야 한다. 브레이크나 가속페달의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애견으로 인한 사고 주의

애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며, 자칫 주행중 차량 내부에서 흥분할 소지가 있다.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뒷좌석 동승자가 애견을 챙겨야 한다.

6.휴가지 음주운전은 금물

생맥주 500cc 혹은 소주 3잔이면 면허정지 수치인 0.05%에 해당된다. 또 소주 5잔을 마실 경우 0.1%로 면허정지 수치이며, 소주 1잔을 해독하는 데는 1시간이 소요된다.

7.운전중 TV·휴대전화는 금물

운전중 TV시청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안전운전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 역시 삼가야 한다.

8.휴가지 '뜨내기' 견인차 주의

휴가철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인 만큼 일방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등록증을 넘겨줘선 안된다. 또 사고시 무조건 견인에 응하지 말고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9.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위험

휴가철 주요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시속 80km로 주행할 때 1초에 22m, 순간적인 졸음인 3초는 60m로 '사선'을 넘게 된다.

10.'아날로그' 운전 금물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자신의 운전기술만 믿는 감각운전은 '아날로그' 운전법이다. 출발 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위험지역을 파악하는 한편 도로의 기상 및 교통정체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